



시장개방(UR)의 의미와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

한중구 / 동국전문대학 포장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UR이란?
3. UR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4. 차기 라운드呢?
5. 맺음말

1. 머리말

7년 동안 계속됐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글로벌리즘(세계주의)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상인 UR협상은 혼란스런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적용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무역규범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UR이 우루과이에서 벌어지는 권투시합이 아니냐 하는 농담도 하곤 했지만, 이제는 엄연히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우리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UR이란?

무역이란 국가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달리 무역은 한 나라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상품도 다른 나라들이 서로 갖다 팔려고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국가간에 경쟁을 벌이다보면 자기 나라의 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 물건의 수입을 막게 되며, 이것이 이른바 보호주의다. 1930년대 들어 이 보호주의가 확산돼 두 차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결국은 자유무역을 확대하지 않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손해 보게 된다는 반성이 일게 됐다.

국가간 자유무역의 확대방안을 찾던 각국은 2차대전이 끝난 1947년 미국의 주도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라는 이름의 국제협약을 만들었다. 관세율을 낮추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신장시키자는 일종의 국제적인 규약을 만들고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사무국을 만든 것이다. GATT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협약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67년에 GATT에 가입했으며, 현재 전세계 1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GATT는 협상을 통해 규범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권투시합의 1회전, 2회전을 뜻하는 라운드를 붙여 전체적인 협상의 이름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문

제의 우루과이라운드(UR)이며, UR이 나오기까지 일곱 차례의 대규모적인 국제협상이 있었다.

50년대 말까지 4차례의 협상은 모두 관세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입관 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각국의 보호주의를 없애 나가자는 논의였고, 60년부터 2년 동안에는 당시 미국무 장관이었던 딜런의 이름을 따서 딜런 라운드가 벌어졌다. 64년부터 67년까지는 미국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주창했다 해서 케네디라운드, 73년부터 79년까지는 일본의 도쿄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동경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경라운드까지의 일곱 차례 국제협상은 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업 무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성숙돼 86년 9월 새로운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곳이 바로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 시에서 그 무역협상의 이름이 우루과이라운드가 된 것이다.

한때 서울에서 열린 세계통상장관 회의가 이 문제를 논의, 우루과이라운드는 자칫 서울라운드가 될뻔(?) 했었다. 1983년초 우리의 상황은 수입개방을 놓고 경제기획원 등은 과감한 수입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상공부, 농수산부 등 실무부처에서는 수입개방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다.

83년 경제기획원에 대외협력위원 회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대세는 개방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85년 스톡홀름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음 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85년에 정부내 분위기가 바뀌어 주도권은 개방파에서 다시 반대파쪽으로 넘어가고, 대외협력기획단이 해체되어 대외경제조정실로 축소, 개편되었다. 결국 정부는 서울라운드의 개최를 번복하고 말았지만, 만약 이때 우리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세계경제변혁의 진원지가 서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UR이란 결국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GATT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벌인 여덟번째의 국제협상이다.

전세계 116개국(GATT 회원국의 4개국)이 추가 참여)이 참가해 7년동안 벌인 UR은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 ▲GATT체제의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한 자리였고, 최종 타결의 공식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UR협상은 외국에 보다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확대 가능성을 높여준 반면 쌀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라는, 1876년 개항 이래 최대의 변화를 몰고 온 역사적인 사건이다.

3. UR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UR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남았던 문제 중에 서비스 분야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보조금분야의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있었다. 이 분야의 이해 당사자는 미국과 EC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해가 없을 수 없었다. 만일 EC가 미국에 졌다면 한국 역시 수입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

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에어버스의 보조금도 우리로서는 취약한 항공산업 육성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EC가 이기는 것이 바람직했다.

UR의 모든 분야는 이렇다. 이 협상은 국제법, 즉 국제무역의 일반규범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의존도가 50%가 넘는 한국과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없다.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UR이 95년도에 발효되면 2004년까지 10년에 걸쳐 선진7개국(G 7)의 국민총생산이 4% 추가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교역이 7,450억달러, 2,000억달러 이상의 소득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모델에 따르면 UR이 타결될 경우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분야의 교역확대 효과로 세계경제는 오는 2002년까지 총 1,950억달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 모델에 근거해 앞으로 10년동안 한국의 수출은 225억달러, 수입은 80억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145억달러 정도의 무역흑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UR의 손익계산은 단순히 무역수지의 대차대조표 뿐 아니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산업피해,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기회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량적 추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UR협상의 각 분야 가운데 공산품, 농산물, 지적재산권, 국제교역규범의 강화 등 네 가지 분야는 비교적

이해 특실이 뚜렷하다. 이중 공산품과 규범강화 부분이 비교적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면, 선진국이 강한 관심을 보이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이른바 신분야와 농산물 수출국의 이해가 반영된 농산물 분야는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각국의 관세가 최소한 33% 이상 인하된다. 무역의 대부분이 공산품인 우리로서는 이 혜택이 가장 크다. 우리의 수출품이 수입국에서 좀더 싼값에 팔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확대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의 GATT 다자간협상과 크게 다른 점은 이번 협상에서 공산품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무세화와 관세조화가 추진된 것인데, 이 분야 역시 다소나마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이는 수입품의 국내 판매도 더욱 쉽게 한다. 한국은 애초 86년 평균관세 17.6%에서 99년까지 10.6%로 내리기로 했다가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 7.9%로 낮추기로 했다. 경쟁력없는 기업 또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수입품과 본격 경쟁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이다.

GATT 규범이 강화된 것도 우리의 교역환경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선진수입국의 이해를 반영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규범강화는 과거 한국의 수출을 가로막은 요인이었던 반덤핑 제소, 긴급수입제한, 상계관세, 수량제한 등 선진국의 일방적 제재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이 야심적으로 달려든 신분야의 경우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

다. 교역질서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을 확립한 것은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을 복제, 도용 등의 방법으로 무상 사용해 오던 행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쟁력이 절대 열세에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우도 이러한 제재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 금융의 경우 거대한 공룡과 같은 외국은행이 본격 진출할 경우 국내은행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번 협상으로 큰폭의 규제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건설분야는 해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산물 분야이다.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여타 부문의 흑자로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업 자체의 구조적 약화에 따르는 산업피해와 농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에 따른 사기저하 등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보상도 불가능할 것이다. 국내산업은 업종별로 각 협상분야마다 큰 이해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의 수혜폭이 큰 집단은 공산품 수출업체이고, 그중 대기업에 돌아갈 몫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조금의 감축으로 원천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는데 특히 내수기업들은 국내를 파고드는 외국제품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처지가 더 어려워진다. 한국은 개도국 가운데 약간 앞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이란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다. 다시말해 어중간한 위치로 인해 양쪽 모두로부터 손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양쪽 모두

를 파고 들어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4. 차기 라운드?

UR은 일단 끝이 났으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시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UR은 농산물을 포함,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세계교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미, EC,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간의 첨예한 대립, 미국의 소극적 협상자세,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으로 당초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한 바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미 UR 협상 막바지 단계부터 미국, EC를 중심으로 차기라운드가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은 클린턴 라운드나 그린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UR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UR 협상이 불완전하게 종결된 것을 계기로 차기라운드를 자신들이 의도한 세계경제체제 완성의 발판으로 이용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클린턴라운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내에 UR 이후의 다자간무역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이미 발족, 대책을 마련해 왔다. 클린턴라운드는 UR협상에서 확보된 교역확대를 더욱 강화하는 외에 세계적인 기준의 투자환경, 노동조건 등을 규정하는 협상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대표부 산하에 설치된 차기라운드 준비위원회는

독점금지, 환경보호, 기술정책, 투자, 노동 등 5개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 다음 라운드의 기본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라운드의 핵심은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단순한 무역규제의 해제 뿐 아니라 환경문제, 노동조건 등 각종 국내법마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라운드와 함께 새로운 라운드로 거론되는 '그린(환경)라운드'도 클린턴라운드와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클린턴라운드의 주요 의제중 하나이며, 새로운 라운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환경라운드는 미국뿐 아니라 EC 등 선진국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차기라운드는 그린라운드로 명명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린라운드를 처음 거명한 것은 EC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린라운드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GATT체제 아래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라운드에서 환경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보호단체들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규제, 수입품에 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 새로운 라운드를 둘러싼 남북 국가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도 취임 초기 UR이 타결되면 94년 봄부터 환경보호와 독점금지를 대상으로 한 다자간 무역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새로운 라운드의 출현은 한국과 같은 개도국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다. UR협상에서 나타난 쌀개방이나 관세인하 등과는 비교도 안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다.

5. 맺는말

UR은 전통적 교역대상이었던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투자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국제교역규범을 만들었고, 규모면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 116개국이 협상에 참가해 이전까지 7차례 있었던 GATT의 다자간협상중 최대의 협상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모든 국제무역의 원칙은 기능이 강화된 GATT 체제 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참가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과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시장을 추가개방함으로써 세계교역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당분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EC, 일본의 다극체제를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이 과정에서 국제분쟁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개념에는 한 나라의 총체적 경제력과 기업, 국가, 국민의 세계화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공산품이며 공산품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공산품

은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면에서 UR의 협상결과가 포장산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고, UR에 대비한 고유 농산물의 개발과 차별화를 위한 포장개발 등으로 농수산물 포장특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포장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되어 UR결과에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중소기업군에 속해 있다는 면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급기술이 필요한 포장재료나 용기, 기술 부문에서 선진제품의 급격한 국내시장 침투가 예상되며, 서비스용역 분야의 개방은 외국의 물류, 포장 용역회사의 대거 진출로 국내적으로 시장이 생기기도 전에 외국회사가 선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포장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금까지 수입다변화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여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있는 포장기계 부문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UR협상의 결과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새롭게 전개될 세계교역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개방으로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내부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